

民俗学的観点からみた韓国文化の展示

著者	金 時徳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50-55
発行年	2000-07-24
URL	http://doi.org/10.15021/00002220

民俗学的観点からみた韓国文化の展示

鄭鍾秀（韓国国立民俗博物館）

1. はじめに

今回、国立民族学博物館（以下、民博）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交替・拡張は 1983 年 11 月韓国展示を開いて以来 17 年ぶりのことである。一度展示をすると新たな変更や拡張は容易なことでない。さらに、展示室を開館してからこれを主題に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くことは非常に意味深いことだといえるだろう。事実、展示後、これに対する批判と問題点を論ずることはあまり行われてこなかった。我が国でも、このような前例はなかった。しかしながら、民博がこのような場を準備したことは、民博の勇気であり、自信の表出であると思われる。国立民族学博物館が、世界的な博物館という名声を得ているのも当然であるかもしれない。したがって、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という題目の今回の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は、そのような面で目立つだけではなく、一つの模範事例になると信じている。

民俗は自国の魂と思想をもつ具体的な生活様式であり、基層文化として生活基盤を構えてから長い歴史を経て、その基礎を作ってきたのである。すなわち、民俗文化は時代の与件と環境に適応し、変化しながら世代から世代へ伝承する生活文化であるため、「生」の文化であるといえる。そのため、環境の変化によって新たな要素が生成・追加されたり、ある部分は消滅するが、民俗の構造的な枠は大きくは変わらないという特徴を持つ。とくに、民俗文化は上層知識層の文化とは違う保守性が強く、原初的な要素を豊かに内包し、現代社会に残る現代文化の一部になることもある。

筆者は、このような観点から、今回の民族学博物館の韓国文化館の展示に関する特徴および改善点について考察する。

2. 民博の展示概要および特徴

民博の韓国展示は、空間構成において室内と室外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室内には壁面と床を利用して展示を行い、室外は酒幕を立て、観覧客が観覧しながら休憩できるよう仕立てられている。

民俗學的 觀點에서 본 韓國文化 展示

鄭鍾秀(韓國國立民俗博物館)

1. 머리말

금번 국립민족학박물관 한반도 문화 교체 확장 전시는 1983년 11월 한국 전시관을 연이래 실로 17년만의 일이다. 한번 전시를 하고 나면 새로 바꾸거나 확장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더구나 먼저 전시실을 개관해놓고 이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시를 해놓고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논한다는 것은 흔치 않을뿐더러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전례가 없다. 그런데도 민博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민박의 커다란 용기요, 자신감의 표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란 명성을 듣는 것도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文化 表象"이란 제목을 가진 이번 국제 학술심포지움은 그러한 면에서 더욱 돋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속은 자기 나라의 얼과 사상을 담은 구체적 생활양식이며 기층문화로서, 생활터전을 마련하면서부터 오랜 역사에 걸쳐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즉 민속문화는 그 시대의 여건과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생활문화인 만큼 살아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요소가 생성·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소멸되지만 민속의 구조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민속문화는 상층 지식층의 문화와는 달리 보수성이 강하고 원초적인 요소를 풍부하게 내포 전승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대문화에도 상당한 친근감을 가진다. 또한 오랜 역사성을 내포하기도 하며, 현대사회에 남아있는 현대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민족학 박물관의 한국문화관 전시에 대한 특징 및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민博의 展示概要 및 特徵

민박의 한국관 전시는 공간 구성에 있어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내에는 벽면과 바닥을 이용하여 전시를 하였고 실외는 주막집을 지어 관람객들이 관람도 하고 쉴 수 있도록 꾸몄다.

まず、室内の展示を考えてみよう。檀君肖像画、朝鮮半島の衣食住、農機具のような生産用具、日常生活で使われる日用雑貨、人生儀礼、信仰（民間信仰、巫俗信仰、仏教信仰、キリスト教、カトリック教）、芸能娯楽、民俗工芸、野球用品のような大衆スポーツ用品、民間医療、家屋（済州島の民家）などである。これをもっと具体的に考えてみよう。

第一に、韓国文化の展示館に入るとまず目にとまるのは済州島の民家の模型である。この模型は比較的精巧に作られ、済州島の伝統的な家屋を理解するのに非常に役立つと思われる。

第二に、入口の左壁面に檀君肖像画がかけてあるが、もしこれを韓国の博物館で展示すると宗教間の葛藤を引き起こし、相当な論争になると思われる。だが、これを果敢に展示した展示企画者の意図もわかる。一言でいえば、朝鮮半島の文化のルーツを檀君にしているのだろう。

第三に、檀君肖像画の隣には、台所用品とや子供用品のような民俗工芸品を展示している。とくに、台所用品の中で関心を引くのが、現在韓国で人気のキムチ冷蔵庫と浄水器である。もちろん、床上の展示場には木で作られたキムチ瓶もあるが、このような現代的な浄水器やキムチ冷蔵庫を韓国の民俗博物館で展示できるかといえば、絶対に無理である。考えることさえ不可能である。それでは、何のために民博ではこれを展示したのであろうか。韓国の国立民俗博物館にもキムチの展示コーナーがあるが、単純にキムチを作る過程が説明されているだけで貯蔵用具などは展示されていない。今回の民博の韓国文化展示館のキムチ冷蔵庫、浄水器展示は単なる遺物を見せるだけではなく、一つの展示物を通じて一国の民俗文化をいかに見せるかという根本的な問題点を提起したと思われる。序文で述べたように民俗が長い歴史をかけて作られたからこそ、民俗博物館の展示は過去だけではなく、現在の民俗にも関心をおくべきだというメッセージを読むことができた。一方、このような過去と現代の展示物を通じて博物館の遺物収集の限界をどこまでにするのかを考えさせてくれた。一言でいうと、歴史民俗的性格の展示方法であるといえる。

第四に、野球ユニフォームのような展示物を通じて韓国の大衆スポーツ文化の理解を助けた点である。これもキムチ冷蔵庫の展示のように破格であった。

第五に、キリスト教、仏教、巫俗、儒教などの韓国の多様な宗教遺物を集め、比較できるようにしたことである。なかには、展示物自体は粗雑なものもあるが、比較できるようにした点は、肯定的に思われる。一つ気になる点は、全体展示の面積の中で

먼저 실내의 전시를 보기로 하자. 단군초상화, 한반도의 衣食住, 농기구와 같은 生産用具,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용잡화, 인생의례, 신앙(민간신앙, 무속신앙, 불교신앙, 기독교, 천주교), 예능오락, 민속공예, 야구 용품과 같은 대중스포츠 용품, 민간의료, 가옥(제주도 민가) 등이다. 그럼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한국문화 전시관을 들어서면 제일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제주도 민가 모형이다. 이 모형은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제주도의 전통적인 살림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둘째, 입구 좌측벽면에 단군상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이를 한국의 박물관에서 전시를 한다면 종교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시켜 상당한 논쟁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과감히 전시장으로 끌어낸 것은 전시기획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한반도 문화의 뿌리를 단군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단군상 옆 벽면에 민속공예품을 전시하였는데, 부엌용품과 아이들이 용품 등이다. 특히 부엌 용품 중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치냉장고와 정수기이다. 물론 바닥 전시장엔 나무로 된 김치독이 있지만, 과연 이와 같은 현대적인 정수기나 김치냉장고들을 한국의 민속박물관에서 전시할 수 있을까하고 묻는다면, 단연코 아니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민박에서는 이를 전시했을까 하는 점이다.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에도 김치 전시코너가 있지만, 단순히 김치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 저장 용구 등은 전시하지 않았다. 금번 민박의 한국문화 전시관의 김치냉장고, 정수기 전시는 단순한 유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물을 통해 한나라의 민속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보여진다. 서두에서 밝혀듯이 민속이 오랜 역사를 걸쳐 만들어진 만큼 민속박물관의 전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속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한편 이같은 과거와 현대의 전시물을 통해 박물관의 유물 수집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생각해 해준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사민속적 성격의 전시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야구 유니폼과 같은 전시물을 통해 한국의 대중스포츠 문화를 이해토록 한 점이다. 이것 또한 김치냉장고의 전시처럼 과격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기독교, 불교, 무속, 유교 등 한국의 다양한 종교적 유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중에는 전시물 자체는 조잡하기도 하지만, 비교할 수 있도록 한점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한가지 아쉬

宗教がしめる部分が大きかった点と、祭礼壇に祭物がないため、韓国の祭礼文化を正しく理解できるのかという点である。韓国の祭礼文化は相当複雑なため、実際に展示しないと混同する恐れがあることを念頭に置くべきである。

第六に、床上に展示されている葬礼と婚礼に関するものも問題である。韓国人の死に対する意識を一目で見られるようにした喪輿と喪主のマネキンの展示は非常に適切であると思われる。とくに、喪輿はそのなかでも圧巻であった。しかし、気になる点は、喪主の喪杖（竹の杖）が喪主の手に握られていなかったため、喪杖の用途がわかりにくいことである。そして、婚礼コーナーでは紗帽冠帯（礼帽と官服）を身につけた新郎と圓衫（礼服）と冠をした新婦だけで、婚礼壇がないため、韓国人の結婚式を一目で見られないのが残念であった。

最後に、室外に展示した酒幕とチャンドクテに関する問題である。もちろん、展示企画者が明らかにしたように酒幕の屋根を銅板で作ったため、文化の歪曲が生じる恐れがある。もちろん、民博の展示の性格上、藁葺きにすると管理が難しいということは理解できる。しかし、これに対する十分な説明がなければ、文化の歪曲を防ぐ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そして、チャンドクテも鉄板で作られているが、これも小石や人工石などを敷いた上に瓶を展示したら韓国の住居文化と食文化を理解するのに役立つのではないか。

3. おわりに

以上において、国立民族学博物館の韓国文化展示の性格あるいは問題を私なりに考えてみた。これ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はじめに、狭く、限定された空間で一国の文化を総合的に見せることは容易なこと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比較的適切な展示テーマの構成と適切な資料配置を通じて韓国文化を一貫性をもって理解しやすく展示した点を高く評価する。

つぎに、大部分の博物館が過去の遺品だけを展示する慣行から果敢に脱皮し、現在の生活用品を適切に配置することで、民俗文化が単に過去の文化（死んだ文化）ではなく、現在生きている文化であることを見せてくれた点である。これは今後、博物館の展示にとって一つのエポックメイキングになると思われる。

最後に、閉鎖展示から解放展示を実現し、説明文の果敢な省略を通じた展示物との直接対話をするようにした点が非常に特徴的である。

운 점이라면 전체 전시면적 중 종교가 차지하는 면이 너무 많다는 점과 제례상에 제물을 차리지 않아 과연 한국의 제례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한국의 제례문화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전시를 하지 않으면 혼동을 야기시킨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섯째, 바닥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상례와 혼례에 대한 문제점이다. 한국인의 죽음의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상여와 상주의 마네킨 전시는 매우 적절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상여는 그 중에서도 압권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상주의 喪杖(대나무 지팡이)이 상주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 상장의 용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혼례코너에서는 사모관대를 신랑과 원삼과 족두리를 한 신부만 있고 초례상이 없어 한국인의 결혼식 장면을 한 눈에 볼 수 없도록 한 점이 흠이라면 흠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실외에 전시한 주막과 장독대에 대한 문제점이다. 물론 전시기획자가 밝혔지만, 주막의 지붕을 추가로 하지 않고 동판으로 함으로써 문화의 왜곡을 낳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민박의 전시 성격상 짚으로 지붕을 하면 관리상 어려운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 설명문이 있어야 문화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장독대도 바닥을 철판처럼 각지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자갈이나 인공돌을 만들어 그 위에 옹기들을 전시했다라면 한국의 주거 문화와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3. 맺음말

이상으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한국문화 전시물에 대한 성격 내지는 문제를 나름대로 짚어 보았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고 한정된 공간에 한나라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절한 전시테마의 구성과 적절한 자료 배치를 통해 한국문화를 일관성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둘째, 대부분의 박물관이 과거의 전시품만을 전시하는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현재의 생활용품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민속문화가 단순히 지난간 문화(죽은 문화)가 아닌 현재 살아있는 문화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박물관의 전시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폐쇄전시에서 열린전시로의 구현, 설명문의 과감한 생략을 통한 전시물과의 직접 대화토록 한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